

#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인터뷰어 신호영 (월드뷰 편집장)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부름에 응답하고자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리친다. “선인들의 고난과 희생으로 쟁취한 오늘의 자유에 안주하거나 무임승차 하지 말라!”

한국 기독교는 세계선교사상 유례없는 성장과 발전을 했고 기독교의 영향력이 사회 곳곳에 미치고 있는 지금,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선한 영향력도 과연 그러한지, 기독교적 도덕과 윤리, 정의와 사랑에 바탕을 둔 공동체인지, 기독교적 가치관은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하는지 노(老) 역사학자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봅니다.

**신호영 편집장 (이하 편)** 먼저 신앙 배경부터 말씀 해주시죠.

**이만열 (이하 이)** 저희 집안은 할머니가 호주 선교사에게 전도 받아 그 무렵부터 기독교적 가정이 되었는데, 아마도 1910년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삼촌 가운데 한분이 1920년대 초에 평양신학교에 입학, 목사가 되었는데 아마 그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방된 뒤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육을 비교적 충실하게 받아 그때 내 인생관의 큰 틀이 잡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마산에 가서 고신 교단 교회에 다니며 학생신앙운동(SFC)에서 훈련을 받았고요, 그 무렵 신앙고백도 확실하게 갖게 되었지요.

**편** 역사 속의 기독교의 모습을 들길 청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의 뿌리,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시대 상황과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한국의 선교 역사를 말하기 위해 경교나 천주교의 유입을 먼저 말해야겠지만, 이를 생략하고 개신교의 시작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은 독특하게 선교사들의 복음전파 이전에 먼저 성경이 보급되었어요. 처음 성경을 접하게 된 것은 1816년 영국 군함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영어로 된 성경을 접하게 되었죠. 이후 1832년에는 귀츨라프(Karl F.A. Gützlaff)가 중국을 거쳐 현재 충남 홍주만 고대도에 한문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이 때 가져

온 성경은 1807년 영국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이 중국에 들어와 1808년 '사도행전' 간행에서 시작된 1823년의 『신천성서(神天聖書)』등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성경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1865년~1866년에 한문 성경을 들고 들어와 뿌렸습다.

존 로스(John Ross)라는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 선교사가 1872년 만주 영구 우장 지역에 도착, 한국선교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는 먼저 조선인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 첫걸음』, 『한국의 역사』 등의 책을 만들죠. 매제되는 맥킨타이어(John McIntyre) 부부와 함께 성경 번역을 시도합니다. 당시 상업 차 영구 우장 지역을 방문했던 의주 출신의 서상륜과 장사꾼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를 공부했지요. 1879년 네 사람의 한국인이 만주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 1882년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한글로 간행되었고, 이 해 김청송과 서상륜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김청송은 압록강 북쪽에 거주하던 한국인에게 복음을 전해 84년에는 75명, 85년에는 25명이 각각 세례를 받았고 그 무렵 600여명의 세례 희망자가 있었습니다. 서상륜은 로스의 파송을 받아 1883년 초 서울에 도착, 약 2년간 사역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는 1885년 초에 심양으로 돌아와 로스에게 약 2년간의 사역을 보고했고 이를 받아 로스는 대영성서공회에 편지를 써서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서울에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70명, 서울 서쪽과 남쪽에 각각 20여명이 있다고 했죠. 로스가 그 서신을 쓴 날짜가 1885년 3월 8일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의 한국 도착이 1885년 4월 5일이니까, 이들 복음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돌아오기 이전에 이미 상당한 지역에 로스역 성경을 통해 복음을 접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뒤 로스는 1887년에 《예수성교전서》라는 신약성경을 번역, 심양에서 출판하게 되지요.

또 1882년 말에는 이수정이 일본에 건너가 예수를 믿고 한국어 성경번역에 나섭니다. 먼저 마태복음, 마가

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등은 한문성경에 이두식 토를 달아 읽을 수 있게 출판했고, 85년 초에는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라는 국한문 혼용 성경을 간행, 당시 일본을 거쳐 들어오던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를 갖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역사 때문인지, 선교사들은 한국 기독교를 바이블 크리스채니티(Bible Christianity)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에서 기독교는 특이하게 성경을 통해 발전했다는 거죠. 성경을 열심히 번역하고 배우고, 교육했죠. 선교사들은 초기 성경공부라고 할 수 있는 사경회(査經會)의 열심도 아주 높게 평가하고 한국교회 성장의 원인을 성경공부에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 한국사회는 유교, 불교와 같은 전통적인 종교들의 이념적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죠. 유교적인 전통이 영향을 끼치던 이 당시에는 혈통에 의해 신분을 나눴습니다. 혈통신분제 사회는 전근대적 사회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사상이 전파되면서 우리 사회는 작고 큰 변화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편** 한국 초기의 기독교의 모습이 더 궁금해집니다. 그 사회와 시대상 속에서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변화를 이끌어 냈을까요?

**이** 초기 기독교는 중요한 변화를 많이 일으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의 변화였습니다. 방금 말한, 기독교의 '인간평등' 사상은 혈통신분제사회를 붕괴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지요. 1900년도 초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백정출신의 '박성춘'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신분차별





을 무시한 교회의 집회 때문에 교회를 분립해간 양반들의 경우도 있었지만 기독교의 평등사상은 당시 대단히 큰 동력이었습니다.

직업의 귀천을 없애는 일과 정의실천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었죠.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정의를 실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는 곳에서도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당시 한말의 시대상은 백성의 고향을 빼는 극심한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상에서 관리들의 부정부패에 기독교인들은 항거를 했죠. 여러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례로, 서북지방에 관리로 임명된 어느 분은 그곳에 '야소교인'이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임지를 영남 고을로 옮겨달라는 청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의 저항 때문에 부정부패를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은 정의감에 앞

장서 있었습니다.

1899년 3월 1일자《대한그리스도인회보》라는 신문에 북도 고을의 관장으로 임명 받은 사람이 '나는 야소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다. 야소교 없는 저 영남마을로 옮겨달라.'고 말합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우리 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라, 어찌 추호나 그른 일을 행할까보냐. 그러나 만약 그 관장이 백성의 재물을 빼앗을 지경이면 이것은 용이하게 빼앗기지 않을 터이니 그 양반이 갈 수 없다는 것이 까닭인 듯...'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대한그리스도인회보》뿐만 아니라 당시 《황성신문》에도 어느 관리가 야소교도 있는 고을에 가지 않겠다고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당시 기독교인들이 부정과 부패를 행하는 관장들에게 많이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장들이 당시 야소교인이 있는 곳에

가서는 부당한 이익을 탈취할 수 없으니 야소교인이 없는 마을로 옮겨가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1899년 전후,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1,200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 기독교 세례교인의 수가 약 1만 명 정도였어요. 1,200명 가운데 한 사람의 세례교인이 있을까 말까한 그 당시 그리스도인의 정의감과 부패저항은 대단했습니다. 지금은 왜 그렇지 않은지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 날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은 인구의 약 20% 정도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정의감, 부패에 대한 저항, 정직성은 이전에 비해 퇴조된 느낌입니다. 기독교인의 수는 많아졌지만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그 당시만 같지 못한 것은 아닌지, 그만큼 한국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불의에 대해 둔감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 **편** 정의와 불의에 앞장서던 기독교가 지금은 왜 그럴까요?

**이** 제가 원인이 무엇이나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뒤 기독교 역사는 변화되어 갔습니다. 불의에 항거하던 기독교가 3·1운동 후에는 ‘예수천당’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 하는 말이 평양대부흥 때(1907)에는 그렇게 절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니다. ‘예수천당’ 신앙은 1920년대에 들어 강화되기 시작했어요. 1919년 당시 우리나라 전체인구를 1,600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때 기독교인 수는 20만을 상회했습니다. 전체인구의 1.5%가 기독교인이었던 셈입니다.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기독교인들은 바로 독립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니다. 거기서 어떤 변화가 있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1920년도 당시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내면화되었습니다. 독립이 좌절된 상황에서 계시록에 나타난 ‘새 하

늘과 새 땅’은 하늘나라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천당간다’는 초월적인 신앙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니다. ‘예수천당’의 구호가 갖는 초월적인 신앙을 비판하는 분들이 당시도 많았습니니다. 그러나 해방이 후까지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의 세속적인 삶과 천당을 향한 거룩한 삶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사는 것이 이 때 강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받습니니다. 그리하여 교회 안에서는 아주 좋은 신앙인이지만 가정과 직장의 삶에서는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전혀 구분되지 않는 이분법적인 삶, 이 세상의 현실문제에는 둔감하게 된 기독교인. 그때의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니다.

하지만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1920년대 예수천당 신앙을 크게 일으킨 이유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한 스스로의 대답은 1930년~1940년 일제의 극렬한 기독교 탄압에 대응,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예수천당’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해석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신앙이 없었다면 1930년~1940년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목숨 내걸고 신사참배 반대투쟁에 나설 수 있었겠나, 하늘나라의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니다.

#### **편** 일제치하 숱한 박해 속에서도 인내한 기독교의 모습을 조금 더 말씀 해주십시오. 박해 속에서 기독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이**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초기에는 기독교가 역동적인 힘을 가졌지만 1900년대 초반에는 약간 주춤했습니다. 그러다가 1905년 전후로 국권수호운동 곳곳에서 기독교의 영향은 크게 나타났습니니다. 한국교회사는 이 시기의 역사를, 1903년 원산부흥운동,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1909년 백만명구령운동 이 세 가지를 큰 흐름으로 잡고 있죠.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을사



늑약이 있던 1905년부터 1910년 국망 사이에 의식 있는 기독교인들이 민족 문제를 두고 고민한 흔적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매국원흉들을 처단한 사건들-장인환 의사의 스티븐스 저격사건, 이재명 의사의 이완용 제거미수사건, 이토(伊藤博文) 저격사건 등이 대부분 기독교인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905년에서 1910년 사이, 기독교인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하던 모습은 1911년 105인 사건으로 인해 주춤해집니다. 1915년에는 일제가 사립학교 법을 고쳐 기독교학교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고, 채플도 못하도록 금지하며 간섭하려고 했어요. 또 포교법도 고쳐 기독교 전도를 방해했어요. 그러다가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3.1운동이 일어나자 기독교인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920년대에는 임시정부 운동을 비롯하여 무장투쟁, 의혈투쟁 등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기독교인들의 민족운

동 참여는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여기서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1930년대 말 1940년대 초에는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 반대투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신사참배 반대투쟁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사참배 반대투쟁은 종교적 신앙적인 동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는 데는 좀 다양해질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은 신사참배 강요가 어떤 환경에서 나온 것 인지를 생각해봐야 해요. 일제가 전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조선민족에 대해 민족말살정책을 강행했습니다. 민족말살정책으로 우리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우리 역사를 없애버리고 창씨개명을 통해 성과 이름도 일본식으로 개명(創氏改名)하게 하였으며, 신사참배도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 강요는 민족말살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신사참배를 단지 종교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고 민족말살정책의 틀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사참배 반대투쟁은 민족 말살정책에 대한 민족적 저항운동 성격을 가졌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운동의 범주에서 해석되어야 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지요. 이런 해석을 하면 신사참배반대투쟁자들의 신앙적 순수성을 해한다고 비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 언급할 것이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희생된 분들이 독립유공자로 예우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립유공자는 독립운동을 했다고 인정되기에 국가가 수여하는 것입니다.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신앙적 동기만으로 해석한다면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는 것 자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사참배 반대투쟁이 민족운동으로 해석될 수 없고 오직 신앙적 문제에 국한시켜야 한다면, 신사참배를 반대한 이들의 후손들이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추앙받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편** 오히려 해방 이후 기독교의 영향이 급속도로 쇠락해 보입니다. 과거 불의와 부정부패에 저항하고 일제의 만행에 투쟁하며 앞장서던 모습과는 달리 외면하는 사회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 1930년대 신사참배 반대투쟁을 할 때만 해도 소수지만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한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1945년 해방이후 1948년까지는 미군정 치하, 1948년부터 1960년 '4·19혁명'까지 이승만 치하를 겪는 거의 15년 동안 한국 기독교 역사는 매우 부정적인 시기를 경과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민족사가 해결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기에 민족사적으로 크게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일제잔재 청산입니다.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에는 이게 가장 우선되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

다. 저는 교회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시 교회가 신사참배와 일제 부역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교단적 결단이 있었다면 그 힘을 가지고 사회를 향해 '우리가 일제 잔재를 청산했듯이 우리사회도 일제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신사참배의 문제와 일제치하 아래의 기독교 지도자들의 부역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반성과 회개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일제잔재 청산에도 일정하게 부정적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는 친일파 청산을 할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공산주의자들의 도전에 대해 경찰과 기존의 관료 질서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친일파들을 대거 등용해버렸습니다. 친일파는 온존했고 일제 잔재 청산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잔존 세력과 후손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1945년 8월15일로부터 분단된 남북을 통일하는 데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기독교인만의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분단을 두고 교회가 얼마나 고민했으며,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념적 갈등해소와 화해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때 반공의 최전선에 섬으로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극단적인 이념 대결에 나섬으로 분단된 남북을 하나로 합치는 문제에 기독교가 거의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통일보다는 분단에 더 앞장서는 데에 더 적극적이지 않았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드러나고 있듯이, 당시 서북청년단이 교회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었는데 교회가 여기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이승



만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교회는 선거 때마다 거의 부정선거에 참여하거나 앞장섰습니다. 부정선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해방이후 민주주의를 확립시켜야 할 시기에 기독교는 오히려 그에 반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어떤 모임에 동원되는 것을 보면서 그 때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해방 당시의 그 세 가지 문제는 지금도 숙제로 남아있지 않나 싶어요.

**편** 매 강의마다 청년들을 향해 말씀하시길, “우리가 피땀으로 일군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앞에 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위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45년에서 60년, 기독교는 세속과 타협했어요. 지금 진보적인 교단에 속한 이들도 이승만 정권에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진보진영이 각성하여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 운동이 80년대 통일 운동에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한국 기독교는 비록 소수에 의한 것이었지만 민족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고 봅니다. 사실 보수진영의 기독교는 이 시기 자신들이 전도를 잘해서 성장했다고 보고 있지만, 어느 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이 시기의 기독교인의 증가는 한국 기독교가 인권운동,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에 앞장섰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1960년~1980년대까지 한국교회가 가장 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990년대를 경과하면서 성장률이 주춤하기 시작했고, 2000



년대에 가서 성장이 둔화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인권·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 기독교는 인권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 등에 오히려 반동적인 입장에 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1960년대 이후 인권·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 과정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꺾박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인 아닌 분들의 희생도 컸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비롯해서 그 밖의 많은 자유를 누리는 것은 바로 앞서간 이들의 이런 희생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신정권 때는 ‘개헌(改憲)하자’는 말만 해도 영장이나 재판 없이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 비하면 우리는 거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결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선진(先進)들이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희생의 대가로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자유가 이런 희생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 세대는 그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을 잊고 아무렇지 않게 무임승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를 위해 희생된 앞서간 사람들을 기억하고 오늘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인권·민주화 운동과 조국의 평화통일,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를 위한 우리의 결단이에요 실천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자유를 누릴 줄은 아는데, 시대와 미래에 대한 책임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가끔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세상을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각오한 젊은이들이 촛불혁명에 참가하는 것을 보면서 뿌듯한 희망을 갖게 되었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미래세대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라고 읽었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 시대와 다가올 시대에 대해 책임 있는 존재

가 되겠다는 의지로 보았습니다. 1960년대 이후 그 엄혹한 군사정권 하에서 개인의 영달을 꿈꾸지 않고 사회정의와 민족통일을 고민했던 많은 선진들의 모습이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이들에게서 보였기 때문이지요.

**편** 종교개혁 500주년의 지금, 다시 한 번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말하는 정신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지 등을 다룹니다. 한국교회, 기독교가 회복해야 할 정신은 무엇일까요.

**이**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으로 뜻깊은 해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럴 때에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텐데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킨 뒤 1520년에 루터는 종교개혁과 관련한 중요한 논문 3개를 발표합니다. 그 논문 중에서 두 번째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에는 ‘만인제사장설(萬人祭祀長說)’과 성속(聖俗)을 타파하는 원리가 담겨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며, 때문에 성직과 다른 직업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성직은 거룩한 직업이고, 다른 노동직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심(Beruf, Calling) 그 자체에 소명(召命)과 직업의 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내가 어떤 소명을 받았는가, 그것은 직업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직과 마찬가지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모두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성직을 받들듯이 자기의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에 충실하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만인제사장설도 같은 것이지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며 한국교회에 많은 개혁이 필요하지만 제가 생

한국교회에  
평화를 향해 애쓰거나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복이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복이라  
외치는 소리가 있나요?

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만인제사장설'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것입니다. '만인제사장설'에서 직업과 소명은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직만큼 세속적인 직업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평신도들이 자기의 '세속적' 직업을 성직으로 받들고 나간다면 가정과 직장이 거룩하게 되고,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는 변화가 올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없고서는 이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고 확장하는 역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평신도들은 우리 젊은이들부터 각성하여 루터의 만인제사장설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한국교회를 생각하며 걱정하는 것은 복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복은 요한 3서 2절의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에서 언급한 것을 들어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여의도 복음'

이라고 규정합니다. 첫째 예수 잘 믿으면, 둘째 돈 잘 벌고, 셋째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박자 축복이고 삼박자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주장은 한국에서 기독교의 복의 패러다임을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이 복은 유교의 오복(五福: 壽·富·康寧·攸好德·考終命)보다도 못해요. 사머니즘에서 말하는 그들의 복 만큼이라도 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결코 그런 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평화를 만드는(화평하게 만드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언급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한 이 복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는 이 복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평화를 향해 애써야 한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강조하질 않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반평화주의자나 정의에 반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나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강조한 이 복을 추구하고 누리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바울 사도가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한 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사도행전 20:35)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받는 것이나 끌어 모으는 것이 복이지 주는 것이 복이라 하질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여덟 가지 복에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한 이 복을 더해 아홉 가지의 복이 한국 교회와 크리스천을 통해서 실천되어야만 한

국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편** 최근 중요한 이슈 중 하나,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반대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국정화의 문제는 무엇이며, 왜 반대하는지 여쭙습니다.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여러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크리스천 학자들 중에는 국정화가 되면 기독교관련 역사서술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합당치 않은 논리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역사를 공부한 입장에서 국정화를 비판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과서의 발전 추세가 국정화→검인증→자유 발행제로 진행되어 왔는데, 검인정제에서 국정화로 간다는 것은 이 시대적 발전과정을 역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교과서 발행의 반역사적·퇴행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덧붙인다면 국정교과서는 북한을 비롯한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사용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국정화는 역사를 하나로 보는 시각을 강요하게 됩니다. 역사에는 단 하나의 해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해석과 시각은 여러 가지이며 중층적입니다. 여기서 역사인식에는 다양화가 필수적입니다. 교과서가 역사교육을 통해 역사의 다양성과 창의성, 상상력을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면, 단일한 국정과로는 이를 감당해 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서술의 오류입니다. ‘건국절 문제’나 ‘식민지근대화론’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지적들이 있으므로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역사 공부하는 사람으로 나 스스로 국정화 조치나 ‘건국절’ 논란에 대해 더 일찍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후회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교육과 교과서 발행 문제에 대해서도 좌고우면하거나 오불관언의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는 ‘예’라 하고 ‘아니면’ ‘아

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못지않게 잘못에 대해 아니라고 답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편**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에 대해,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하는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만열

1938년 경남 함안 출생. 서울대학교 문리대 사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문학박사)했고, 합동신학교에서 공부(신학사)했다. 숙명여대 교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위원장,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한국사학회·한국사학사학회·도산학회 회장, 문화재위원회 근대분과 위원장,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위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및 이사장, <복음과상황> 공동발행인, 남북나눔운동 연구위원장, 산돌손양원기념사업회 이사장, 함석헌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희년선교회 대표, 김교신선생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있다. 지은 책으로 <삼국시대사강좌> <한국 근대 역사학의 이해> <한국기독교와 역사의식> <단체 신채호의 역사학 연구> <대한성서공회사(Ⅰ, Ⅱ)> <공저> <한국 기독교와 민족의식> <한국 기독교 수용사 연구> <우리 역사 오천 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 기독교 의료사> <한국 기독교와 민족 통일운동> <한국 근현대 역사학의 흐름> <역사의 중심은나다> 등과 몇몇 산문집이 있다.